

KOSDAQ | 식품,음료,담배

이지홀딩스 (035810)

농축산 전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한 지주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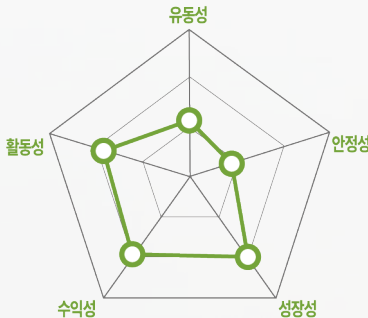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2024년 데브니쉬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바이오매트릭스, 뉴트리민스를 인수하면서 미국 사료첨가제 사업 지속 확대 중
- 농축산 전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는 전사적인 실적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는 중
- 미국 사료첨가제 사업 확대에 따른 사료 사업 실적 증가, 국내 돈가 상승에 따른 양돈 사업 ASP 상승과 수익성 개선 영향으로 2026년 전사 실적 개선 기대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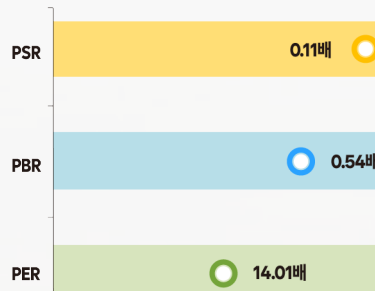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필수소비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 PBR은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필수소비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Analyst 조영환 yh.cho@kirs.or.kr

RA 박규연 park.gyuyeon@kirs.or.kr

적극적인 M&A를 통한 미국 사업 확대

2018년 DFS와 2021년 FMC를 인수하며 미국 내 사료 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24년 사료첨가제 기업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밸류체인을 사료첨가제 영역까지 확장하며 사업 구조를 한 단계 고도화. 2026년 1월에는 사료첨가제 관련 기업 바이오매트릭스와 뉴트리빈스를 추가로 인수하며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판매 채널 확장이 기대됨. 이를 기반으로 사료첨가제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실적 확대 예상

농축산 전 과정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기대

순수지주회사로서 총 62개의 종속회사를 통해 곡물 조달부터 사료첨가제, 배합사료, 사육, 도축, 육가공, 소비자 유통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 이에 따라 각 단계 간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며, 이러한 구조는 전사적인 실적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는 중

2026년에도 실적 개선세 이어질 전망

2026년 매출액은 3,580억원(+5.8% YoY), 영업이익은 1,756억원(+16.0%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미국 사료첨가제 사업 확대에 따른 사료 사업의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돈가 상승에 따른 양돈 사업의 ASP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2026F OPM 4.9%, +0.4%p YoY)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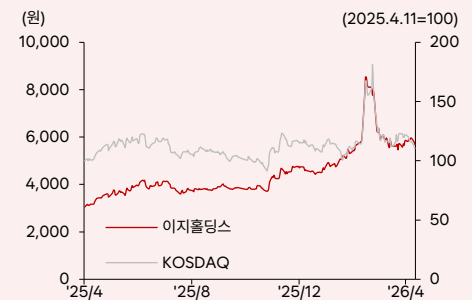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30,103	31,192	32,850	33,889	35,841
YoY(%)	51.7	3.6	5.3	3.2	5.8
영업이익(억원)	999	1,038	1,234	1,514	1,756
OP 마진(%)	3.3	3.3	3.8	4.5	4.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14	265	170	268	297
EPS(원)	175	407	261	414	460
YoY(%)	-52.2	132.9	-35.8	58.5	11.1
PER(배)	16.1	7.8	10.5	10.8	12.1
PSR(배)	0.1	0.1	0.1	0.1	0.1
EV/EBITDA(배)	7.6	7.4	7.4	6.1	5.5
PBR(배)	0.3	0.4	0.3	0.4	0.5
ROE(%)	2.1	4.6	2.7	3.9	4.2
배당수익률(%)	2.7	3.8	9.1	30.4	4.1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4/22)	5,580원
52주 최고가	8,530원
52주 최저가	3,230원
KOSDAQ (4/22)	1,181.12p
자본금	329억원
시가총액	3,600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6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7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7억원
외국인지분율	59.7%
주요주주	지현옥 외 4인 52.2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2	46.5	72.8
상대주가	-7.8	9.0	4.7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이지홀딩스는 곡물 조달부터
사료첨가제, 배합사료, 사육, 도축,
육가공, 소비자 유통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한
지주회사**

이지홀딩스는 1988년 설립된 종합 농축산 기업으로, 사료첨가제 및 사료 관련 기술 기반 사업에서 출발해 현재는 곡물 조달부터 사료첨가제, 배합사료, 사육, 도축, 육가공, 소비자 유통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한 지주회사이다. 1990년대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사료용 효소제와 생균제의 국산화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사의 대표 사료첨가제인 Endopower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사료첨가제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축적된 첨가제 기술을 자돈사료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2004년 자돈사료 전문 브랜드 아이피드를 출시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갔으며, 2010년에는 자돈사료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며 국내 시장 내 지배력을 구축하였다.

동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자회사 설립과 인수합병을 통해 축산 밸류체인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왔다. 2000년 옵티팜을 설립하며 생명공학/동물용 백신 영역에 진출하는 한편, 2003년 팜스토리(사료)와 우리손에프앤지(양돈)를 편입하며 양돈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2011년 우리손에프앤지의 사료사업 부문을 팜스토리로 이관하며 사업 구조를 재편하였고, 2011년 마니커(닭), 2015년 정다운(오리) 등을 차례로 인수하며 양돈과 가금을 아우르는 종합 축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였다. 이처럼 자회사 수가 확대됨에 따라 동사는 2020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업부문은 신설법인 이지바이오로 분리되어 2020년 6월 재상장되었고, 존속법인은 이지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한편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2011년 영국 Pathway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이후, 해외 현지 법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사료첨가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였다. 이어 2018년 미국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곡물·사료업체 DFS Oskaloosa를 인수하며 현지 생산 및 영업 거점을 확보하였고, 2021년에는 1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북미 축산기업 Furst-McNess Company를 인수하며 사업 범위를 북미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에는 자회사 이지바이오를 통해 북미 사료첨가제 기업 데브니쉬를 인수하며 사업 구조를 한 단계 고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동사는 미국 내에서 기존 사료 중심 사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첨가제 사업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하였으며, 원곡물 조달부터 사료 제조, 첨가제 배합에 이르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완성하였다. 최근에는 2026년 1월 다당류 코팅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매트릭스를 인수하여 첨가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뉴트리빈스 인수를 통해 현지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M&A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연결조정 전)은 사료사업 52%, 축산 및 육가공 사업 23%, 가금사업 17%, 기타사업 8%로 구성

2025년 기준 사업부별 매출 비중(연결조정 전)은 사료사업 52%, 축산 및 육가공 사업 23%, 가금사업 17%, 기타사업 8%로 구성되어 있다. 사료사업부는 사료(팜스토리/FMC/DFS)이지팜스 등)와 사료첨가제(이지바이오/Devenish 등)로 구분되며 축산 및 육가공 사업은 양돈(우리손에프앤지/팜스토리 등)과 도축·가공(우리손에프앤지/팜스토리 등)으로 구성된다. 가금사업은 도계(마니커), 도암·우모(정다운), 육가공(마니커에프앤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사업은 생명공학(옵티팜)과 곡물(새들만/에코호즈) 등으로 나뉜다. 주요 자회사별 매출 비중(연결조정 전)은 팜스토리(상장) 38%,

이지USA홀딩스(비상장) 18%, 이지바이오(상장) 12%, 마니커(상장) 9%, 우리손에프앤지(상장) 7%, 정다운(상장) 5%, 이지팜스(비상장) 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2.22%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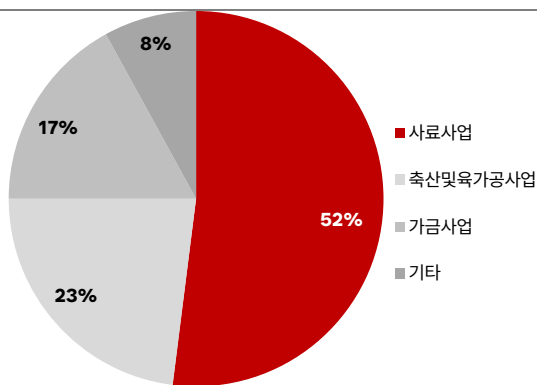
2025년 말 기준 이지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지현욱 회장은 28.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 아날로그(22.52%)와 지원철 명예회장 등 기타 특수관계인(1.14%)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2.22%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24년 말 대비 2.48%p 상승하며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었는데, 이는 1) 2025년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629660주(0.96%)를 전량 소각하면서 총 발행주식 수 감소에 따른 지분율 상승 효과(+0.49%p)와, 2) 아날로그의 지분 확대(+1.97%p)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홀딩스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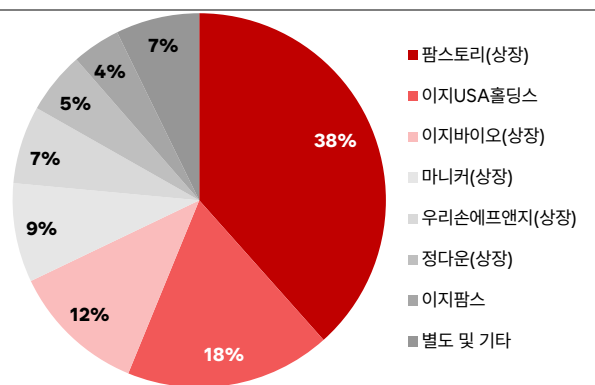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사업부별 매출액(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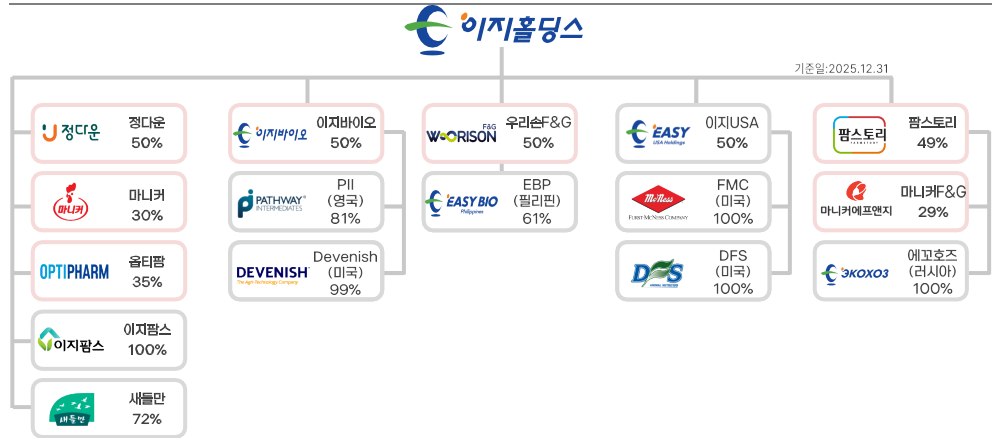
주: 연결조정 전 기준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주요 자회사 매출 비중(2025년 기준)



주: 연결조정 전 기준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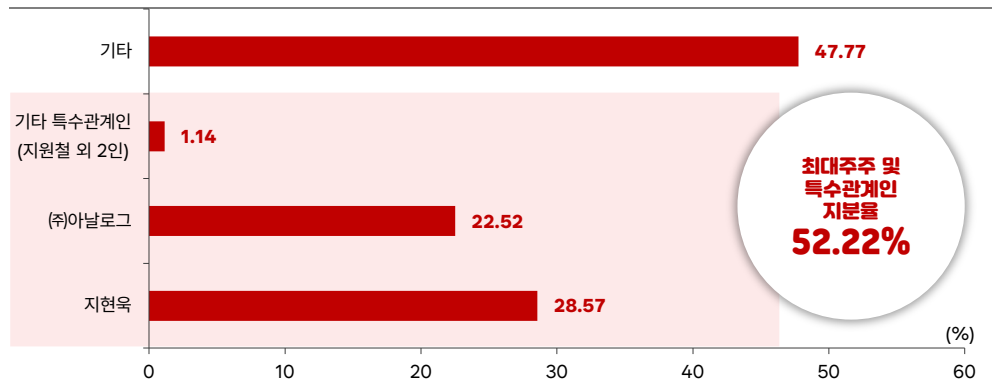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주요사업

사료사업부 Feed Business	축산및육가공사업부 Livestock Business	가금사업부 Poultry Business	기타사업부
<p>사료첨가제 사료</p>	<p>양돈사육 도축및가공</p>	<p>닭(도계, 오리(도양)) 우모(오리털) 육가공</p>	<p>생명공학 해외자원개발 곡물생산</p>
<p>해당 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지바이오 (첨가제, 자돈사료) 팜스토리, 이지팜스 (사료) FMC, DFS (사료_미국) PPI (사료첨가제_영국) Devenish (사료첨가제_미국) 	<p>해당 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손에프앤지 (도축가공) 팜스토리 (도축가공) 팜스워드, 웰피그 (양돈계열화) 	<p>해당 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니커 (닭, 도계) 정다운 (오리, 도양) 마니커에프앤지 (육가공) 	<p>해당 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옵티팜 (생명공학, 이종장기) 에코호즈 (해외자원개발) 새들만 (쌀) 이지홀딩스 (지주회사)
<p>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란, 자돈사료 국내 M/S 1위 자돈사료 전문회사 사료첨가제 국내 M/S 1위 글로벌 사료첨가제 시장 공략 고품질 사료 기술력 	<p>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 (MSY) 1등급 이상 출현율 국내 최고 수준 돼지 계열화 사업을 통한 시장 확대 거점도축장 (강원도, 충청도) 바이오가스플랜트 (분뇨처리) 	<p>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드경쟁력 (국내 최초 닭고기 브랜드) '삼계탕' 등 간편식 해외 수출 오리 시장 규모 확대 오리털(우모) 시장 성장 	<p>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장기(형질전환돼지) 관련 연구 및 개발 에코호즈 (해외자원개발) VLP(바이러스유사입자) 백신 박테리오파지 천연물 고품질 쌀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주주현황(2025년말 기준)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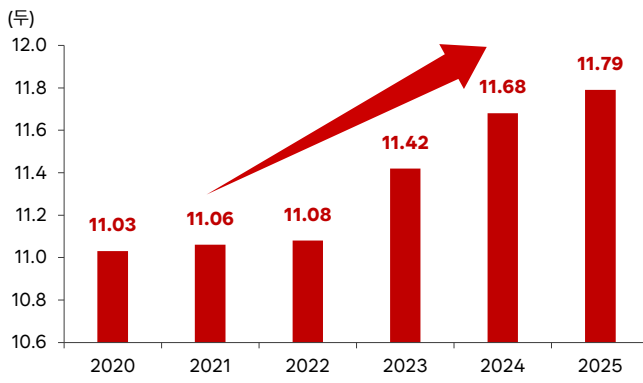
■ **글로벌 축산시장 효율화에 따른 사료첨가제 시장 확대**

축산 농가의 효율화에 따라 사료첨가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글로벌 축산시장은 점진적으로 선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인건비, 에너지비 등 사육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단순한 사육 규모 확대보다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을 전환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 중심의 구조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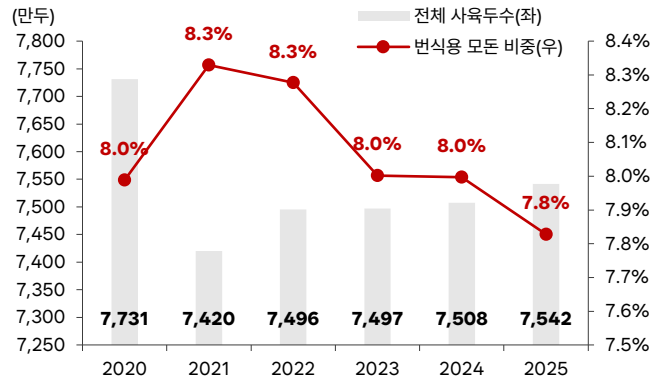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주요 생산성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양돈 산업의 복당 이유자돈수(모돈이 한 차례 분만 후 이유 시점까지 생존한 자돈의 평균 두수)는 2021년 11.06두에서 2025년 11.79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 개량, 사육 환경 개선, 질병 관리 고도화 등과 함께 생산 효율성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형 농가 중심의 규모화, 자동화 설비 도입, 표준화된 사양관리 체계가 확산되면서 사육 전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료 투입 대비 성장 효율을 개선하고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에 대한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돼지 복당 이유두수 추이



주: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 USDA,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돼지 사육두수 및 번식용 모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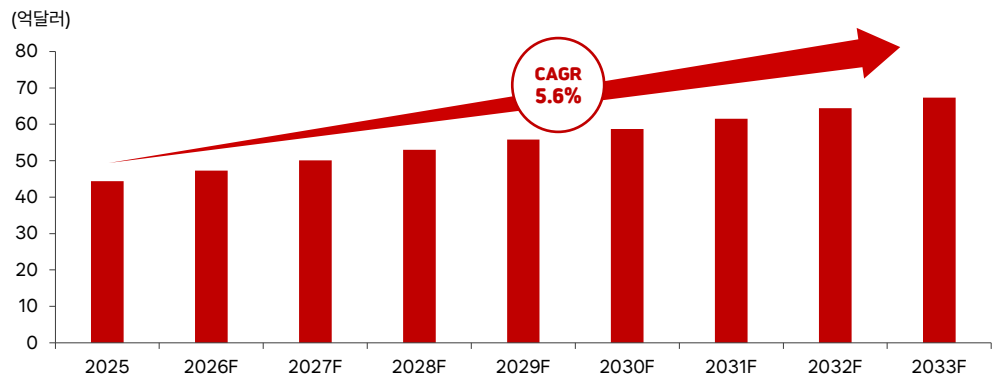


주: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 USDA,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료첨가제는 배합사료에 소량 첨가되어 가축의 성장 촉진, 면역력 강화, 소화 효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물질로, 생산성을 정량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료첨가제는 제품의 기능과 기술 수준에 따라 커머더티와 스페셜티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커머더티 제품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는 범용 제품인 반면, 스페셜티 제품은 효소제, 생균제, 유기산 등 특정 기능을 통해 가축의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항생제가 성장 촉진과 질병 예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을 대체해왔으나,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과 EU 등 축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생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료첨가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 확대 흐름을 기반으로 사료첨가제 시장은 미국과 EU 등 주요 축산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사료첨가제 시장은 2025년 약 44.4억 달러에서 2033년 67.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홀딩스의 주요 자회사 이지바이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4년 미국 대형 사료첨가제 기업 데브니쉬를 인수하며 세계 최대 축산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 내 생산 및 영업 거점을 확보하였다. 향후 기능성 사료첨가제 중심의 매출 확대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첨가제 시장규모 추이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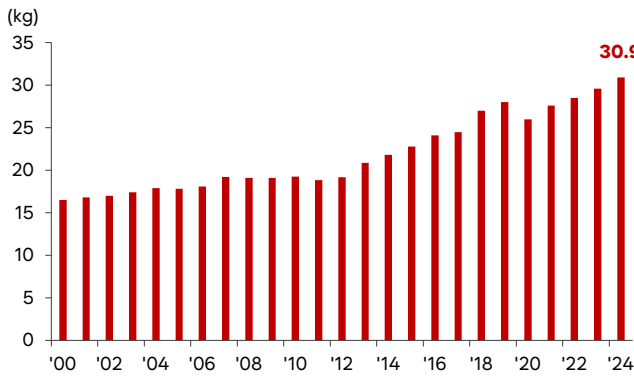
견조한 국내 돈육 소비와 농장의 대형화

1인당 돈육소비는
2015년 22.8kg에서
2024년 30.9kg으로
연평균 2.9% 성장률 기록

2022년 기준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8kg으로 사상 처음 쌀 소비량(56kg)을 상회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돼지고기는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3대 육류(돼지/소/닭) 소비량 가운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3%에 달하며, 육류 소비 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1인당 돈육 소비량은 2015년 22.8kg에서 2024년 30.9kg으로 증가하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돈육 소비량 또한 같은 기간 117만 톤에서 160만 톤으로 연평균 3.1%의 성장세를 보이며 10년 전 대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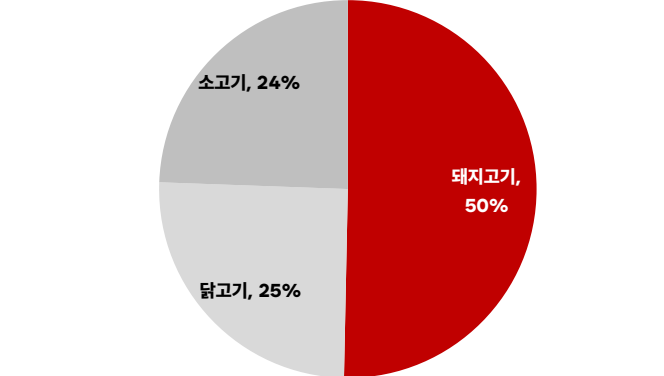
이러한 소비 증가는 국민 소득 상승과 더불어 외식 및 간편식 중심의 식문화 확산, 냉장/냉동 유통망의 고도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와 배달 시장의 성장은 돼지고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대형 유통 채널의 신선식품 공급 역량 강화는 돈육 소비의 일상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 결과 돼지고기는 가격 변동이나 경기 흐름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 국내 축산물 소비 구조 전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대 육류(돼지·닭·소) 소비량 비중(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정부 규제 강화, 생산비 증가
등으로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농장 수 지속 감소 중**

다만 소비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양돈 산업은 영세 농가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악취 문제 등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과 정부의 환경과 입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진입과 기존 농장의 사육 규모 확대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대형 농장에 비해 시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농가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나 각종 가축 질병 발생 시 대응 능력이 대형 업체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사육두수 감소로 직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1,100만 두를 하회하며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진 폭염과 함께, 2025년 여름 발발한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의 질병 확산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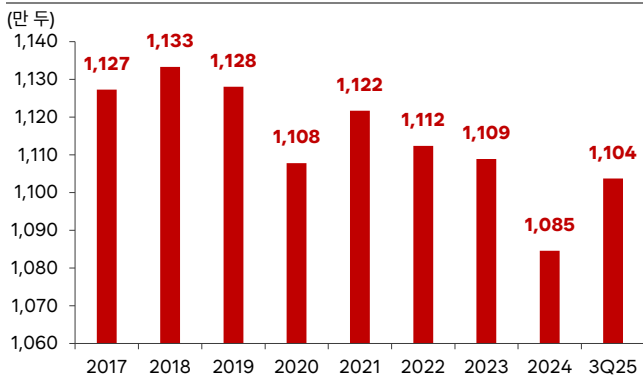
생산비 증가 역시 공급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가 상승은 제한적인 반면, 비육돈(고기용 돼지) 마리당 생산비는 구조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농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육돈 마리당 생산비는 2015년 30.7만원에서 2024년 42.1만원으로 약 3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마리당 평균 판가는 약 12% 상승에 그쳤다. 사료비를 비롯한 사육 관련 비용 상승과 함께 환경방역 규제 강화, 시설 투자 부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영세 농가의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비육돈 마리당 순이익은 2024년 기준 3.2만 원으로, 2015년 9.7만 원 대비 68%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사육 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지며, 2017년 1분기 말 6,387개였던 국내 돼지 농장 수는 2025년 3분기 말 5,477개로 14% 감소했다.

이와 같은 공급 구조 변화는 양돈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양돈 관리 역량과 규모를 갖춘 대형 업체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체계적인 사육 관리 시스템과 질병 대응 역량, 안정적인 출하 구조를 확보한 기업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출하 두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농장을 기반으로 한 운영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생산비 상승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양돈 산업은 영세 농가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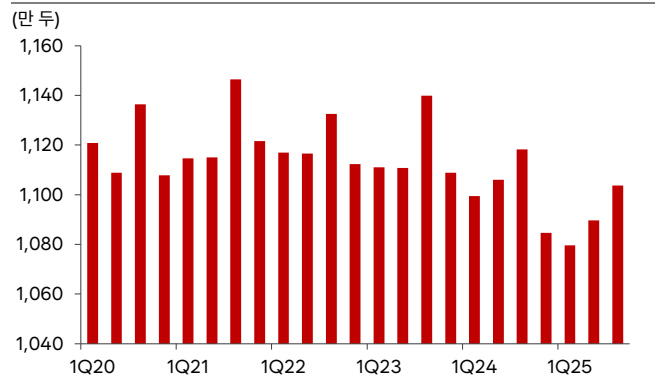
이러한 산업 환경 속에서 이지홀딩스 자회사 우리손에프앤지와 같은 대형 양돈 업체의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동사의 2024년 기준 국내 비육돈 판매 실적은 29.5만 두로 업계 3위 수준이나, 시장점유율은 판매두수기준 약 1.6%에 불과하다. 영세 농가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사는 농장 인수를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점유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연간 돼지 사육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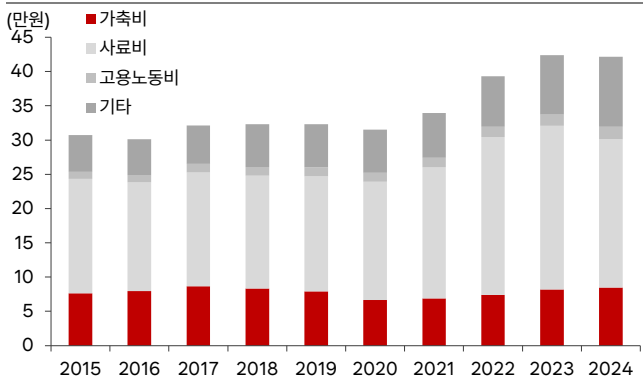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분기별 돼지 사육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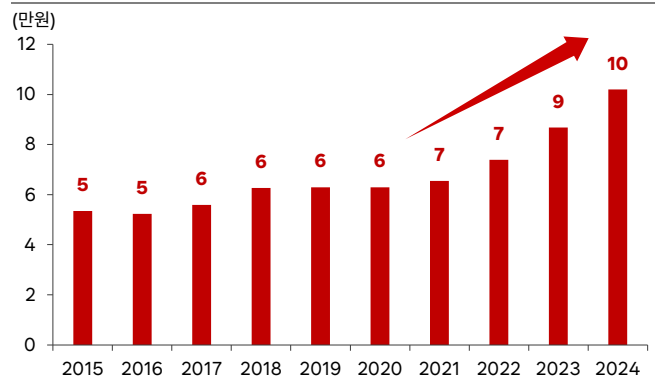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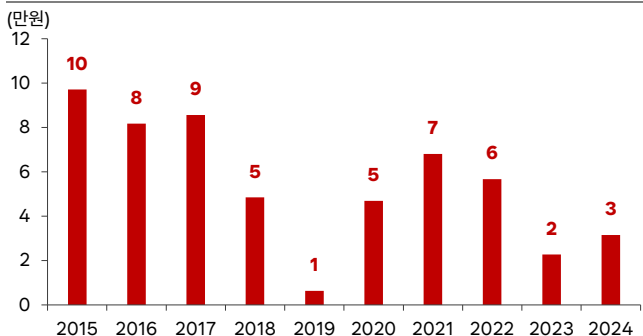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추이(사료비, 인건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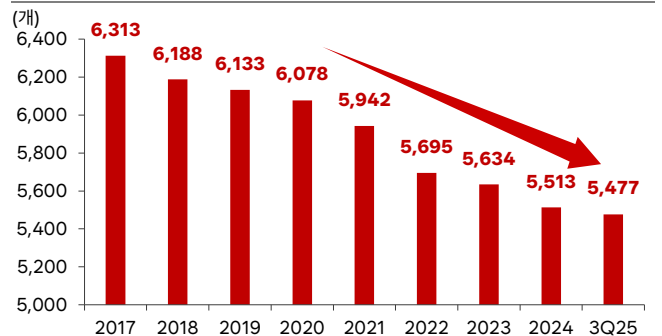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비육돈 마리당 순이익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돼지 사육 농장 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견조한 미국 돈육 가격과 곡물가 가격 안정화

2026년에도 견조한 돼지고기 수요와 소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수요 등으로 미국 돈육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25년 미국 돈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2025년 미국 지육돈(도축 후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몸통) 선물 평균 가격은 cwt(100파운드)당 92.1달러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는데, 2~3분기 PRRSV(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며(-0.8% YoY)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소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6년에도 이러한 지육돈 가격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고기 수요 확대에 따라 육가공 업체들의 원재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멕시코의 견조한 수입 수요가 증가 물량을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번식용 모돈 감소와 질병 리스크 역시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가격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USDA는 2026년 연평균 생돈 평균 가격을 cwt당 69.13달러 수준으로 전년(68.8달러)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6/4 기준). 이와 같은 환경은 미국에 생산 및 영업 거점을 보유한 이지바이오 자회사 데브니쉬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농가의 사육 의지가 강화되고, 생산 효율 개선을 위한 기능성 사료첨가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육돈(돼지) 선물 가격추이



자료: Eiko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생우(소) 선물 가격 추이



자료: Eiko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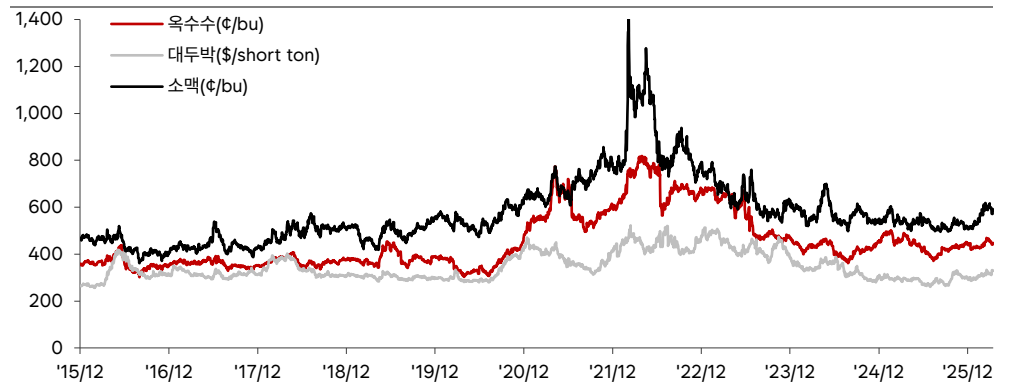
사료의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대두박, 소맥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

한편, 사료의 주요 원재료인 3대 곡물(옥수수, 대두박, 소맥)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이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생산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축적이 이어지며 곡물 시장의 수급 구조가 완화된 데 기인한다.

사료 내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인 옥수수의 경우, 수확 면적 증가에 힘입어 멕시코, EU 등 주요 수입국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2025/26 시즌 미국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인 약 170억 부셸(약 4.3억 톤)에 달하며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USDA에 따르면 2026년 미국 내 파종 면적은 전년대비 약 3% 감소한 9,534만 에이커 수준으로 예상되나, 중국, 인도 등 글로벌 생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공급은 여전히 여유로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두박과 소맥 역시 공급 우위에 따른 가격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USDA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6년 대두박 공급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약 4,66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말 재고는 약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 또한 EU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며 글로벌 생산량이 약 8억 4,42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세 둔화로 기말 재고는 약 2억 8,310만 톤으로 5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주요 곡물 전반에서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이지홀딩스의 원가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곡물(옥수수/대두박/소맥) 가격 추이



자료: Eiko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적극적인 M&A를 통한 미국 사업 확대

미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M&A를 통해 사료첨가제 사업 확장 중

이지홀딩스는 적극적인 M&A를 통해 세계 최대 축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 다음으로 양돈 산업 규모가 큰 시장으로, 2025년 말 기준 돼지 사육두수는 7,542만 두에 달해 국내 사육두수 약 1,079만 두 대비 7배 이상에 이르는 대형 시장이다.

동사의 미국 시장 진출은 2018년 아이오와주 오스칼루사에 위치한 사료업체 DFS Oskaloosa(DFS) 인수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DFS는 배합사료 공장과 곡물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옥수수 산지인 콘 벨트 중심부에 위치해 원재료 조달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다. 이를 통해 동사는 현지 곡물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1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북미 축산기업 Furst-McNess Company(FMC)를 인수하며 사업 범위를 북미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FMC는 북미 지역에 다수의 사료 공장을 보유하고 배합사료, 프리믹스, 기능성 첨가제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광범위한 생산 인프라와 영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DFS와 FMC 인수를 통해 이지홀딩스는 미국 내 원재료 조달과 사료 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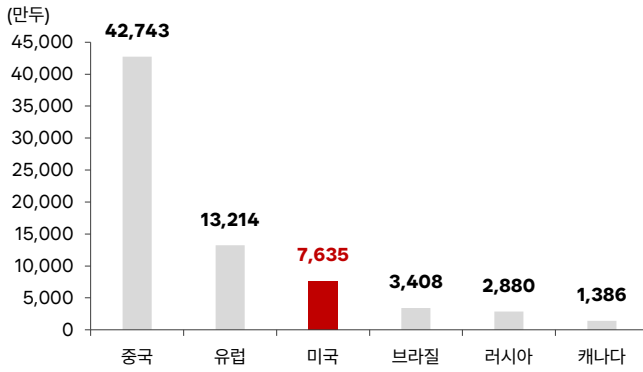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동사는 2024년 자회사 이지바이오를 통해 북미 사료첨가제 기업 데브니쉬를 인수하며 미국 내 사료 밸류체인을 사료첨가제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사업 구조를 한 단계 고도화하였다. 데브니쉬는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를 두고 미국 내 4개 공장과 멕시코 내 1개 공장을 운영하며 미국 전역에 생산 및 영업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사료첨가제 기업이다. 축종별 매출 비중은 돼지 32%, 닭 20%, 소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돼지 관련 사료첨가제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네소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 미국 내 주요 양돈 중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데브니쉬의 주요 제품군은 프리믹스(범용 첨가제), EnteriMAX(자돈사료), DeviGuard(기능성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프리믹스가 가장 주력 제품이다(매출 비중 약 50% 수준으로 파악). 프리믹스는 가축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최적으로 배합하여 사료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범용 첨가제로, 양돈, 양계, 반추 등 다양한 축종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제품군이다. 다만 범용 첨가제는 수요가 안정적이고 판매량이 높은 반면,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기능성 첨가제 대비 마진이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데브니쉬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자체 보유한 R&D 역량에 더해 이지바이오와의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DFS와 FMC가 구축한 사료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능성 사료첨가제 사업 확장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추가적인 M&A를 통해 미국 내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2026년 1월에는 다당류 코팅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매트릭스를 인수하며 기능성 사료첨가제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료첨가제 기업 뉴트리빈스 인수를 통해 판매 채널을 확장하였다. 동사는 이러한 일련의 M&A를 통해 해외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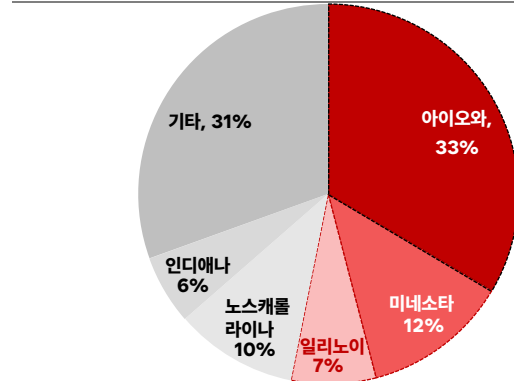
해외 매출 비중(내부거래 제거 전 기준) 역시 2023년 23% 수준에서 2025년 27%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해외 사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 사육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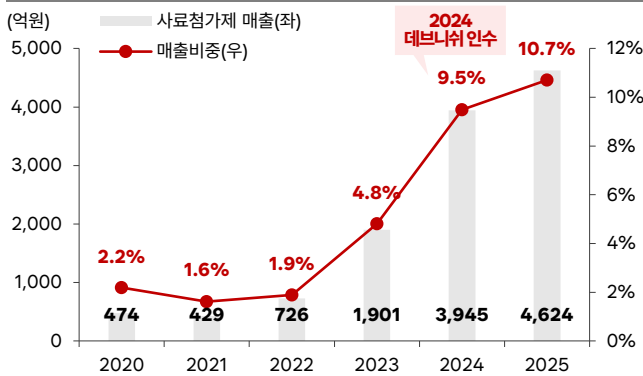
자료: USDA,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지역별 돼지 사육두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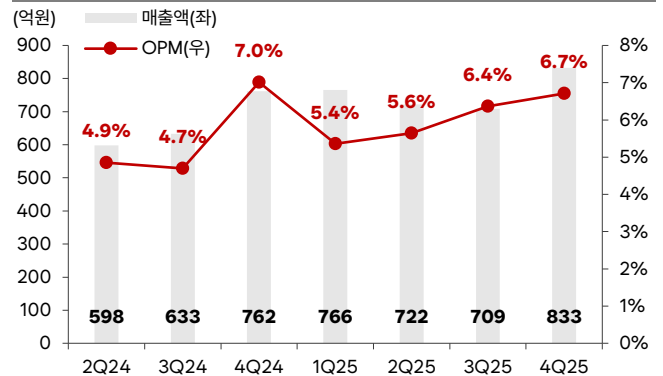
주: 2025년 12/1 기준, 이지홀딩스의 주요 사업 지역은 아이오와, 미네소타, 일리노이
 자료: USDA,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사료첨가제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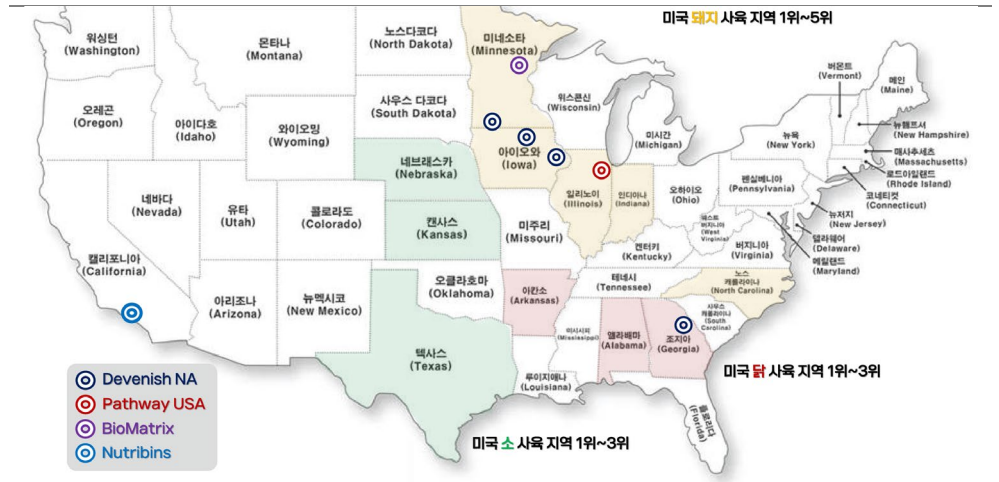
주: 전사 매출 대비 비중 / 연결조정 전 기준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데브나쉬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미국 내 사업장 현황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농축산 전 과정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기대

농축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기반으로 전사적인 시너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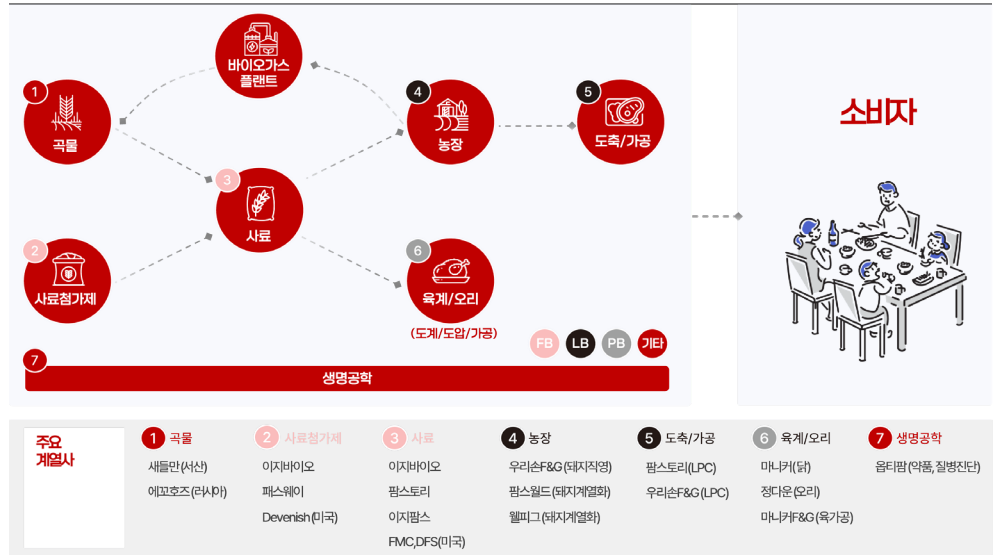
이지홀딩스는 농축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기반으로 전사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동사는 곡물 조달부터 사료첨가제, 배합사료, 사육, 도축, 육가공, 소비자 유통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외부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흡수하고 이익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새들만, 에코호즈 등을 통해 곡물을 확보함으로써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지바이오와 데브니쉬를 중심으로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내재화하여 사료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팜스토리, 이지팜스, FMC 등 사료 생산 인프라와 결합되며, 농장별 환경과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료 공급으로 구현된다. 또한 전국에 분포한 사료 공장을 기반으로 인접 농장에 공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육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료 및 사양관리 역량이 생산성 지표로 직결된다. 우리손에프앤지를 중심으로 한 계열화 농장은 2025년 기준 MSY(모돈 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226두를 기록하며 국내 평균 191두를 상회하고 있으며, 1등급 이상 출현율 역시 76.4%로 국내 평균 대비 약 9.2%p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우위는 GPP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유전자 관리 체계에 기반한다. 동사는 Hendrix Genetics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등 품종별 특성을 반영한 종돈을 자체 개량하고 있으며, GPP(핵돈군)-GP(중식돈군)-PS(비육돈군)로 이어지는 단계별 생산 체계를 통해 품질이 균일한 비육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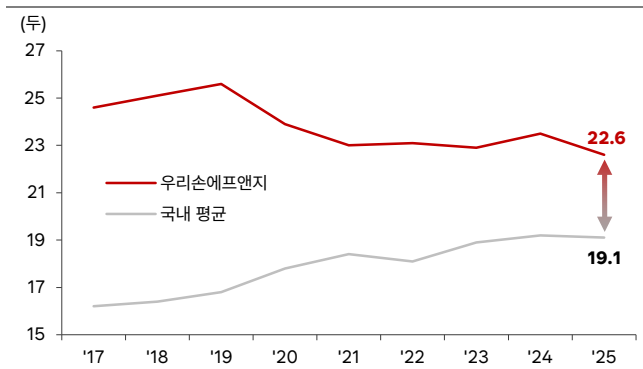
더 나아가 마니커에프앤지를 통한 육가공을 기반으로 제품 형태를 다변화하는 한편, 또봉이에프앤에스(또봉이통닭), 팀브로(목구멍) 등 외식 프랜차이즈 채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B2C 영역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축산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각 단계 간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는 전사적인 실적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지홀딩스 밸류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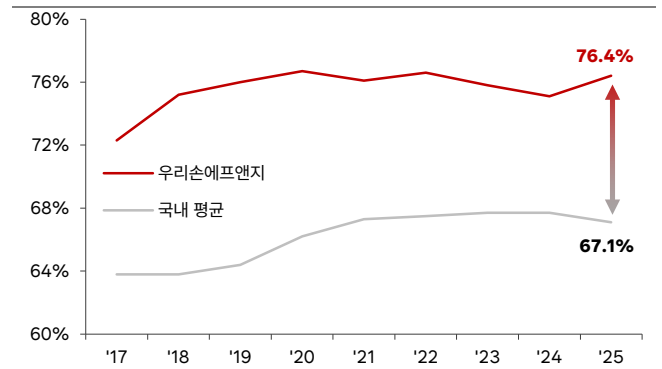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vs 국내 평균 MSY 비교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돼지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 비교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리손에프앤지 유전자 사업



자료: 우리손에프앤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2025년 실적 리뷰**

사료사업부와 축산 및
육가공사업부 실적 호조로
2025년 실적 전년대비 증가

이지홀딩스의 2025년 매출액은 3.39조원(+3.2% YoY), 영업이익은 1,514억원(+22.7% YoY)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대비 개선되었다. 이는 사료사업부와 축산 및 육가공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먼저 사료사업부 매출액은 2.26조원(+2.0% YoY), 영업이익은 943억원(+6.5% YoY)을 기록하였다. 자회사 이지바이오가 2024년 인수한 데브니쉬의 실적이 2024년에는 약 10개월만 반영된 반면, 2025년에는 온기 반영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데브니쉬의 2025년 2Q~4Q 누적 기준 매출액은 2,264억원(+13.6% YoY), 영업이익은 142억원(+26.4% YoY)으로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범용 첨가제 판가 개선과 함께 고부가 기능성 첨가제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축산 및 육가공사업부(LB) 매출액은 9,885억원(+5.7% YoY), 영업이익은 449억원(+43.2% YoY)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여름철 폭염과 질병 발생 등의 영향으로 국내 돼지 공급이 감소하면서 돈가가 상승(평균도매가격 +9.0% YoY)하였고, 이에 따른 양돈사업 ASP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LB 사업부 OPM +1.2%p YoY).

2026년 실적 전망

미국 사료첨가제 사업 확대와 국내
돈가 상승 영향으로 2026년에도
전년대비 실적 개선 전망

2026년 매출액은 3.58조원(+5.8% YoY), 영업이익은 1,756억원(+16.0%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료첨가제 사업 확대에 따른 사료 사업의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돈가 상승에 따라 양돈 사업 ASP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026F OPM 4.9%, +0.4%p YoY).

사료사업부는 2026년에도 미국 사료첨가제 사업을 중심으로 YoY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월 자회사 이지바이오가 바이오매트릭스와 뉴트리빈스를 추가 인수함에 따라 외형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사료첨가제 자회사 간 R&D 협업을 기반으로 고부가 기능성 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판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믹스 개선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FMC, DFS, 데브니쉬, 뉴트리빈스 등 계열사 간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매 채널 확장 시너지 역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산 및 육가공사업부 역시 YoY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025년 연간 6건에서 2026년 1분기에만 26건 이상 발생하며 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1Q26 국내 지육 평균 경락 가격은 전년대비 9.3%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정책이 돈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을 일부 완화하면서 돼지고기 수요와 가격 흐름이 전반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손에프앤지 등 양돈 자회사의 ASP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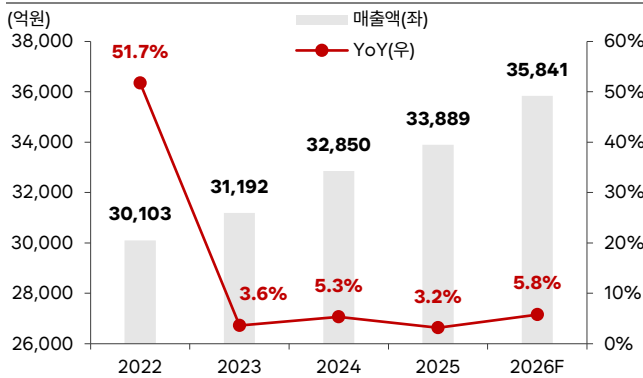
이지홀딩스 실적 테이블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0,103	31,192	32,850	33,889	35,841
(YoY)	51.7%	3.6%	5.3%	3.2%	5.8%
사료사업	21,056	21,311	22,116	22,554	23,771
축산및육가공사업	8,525	8,629	9,355	9,885	10,446
가금사업	6,949	7,097	7,132	7,311	7,495
기타	1,952	2,500	2,949	3,404	3,930
연결조정	-8,379	-8,345	-8,703	-9,266	-9,799
매출총이익	4,136	4,331	5,121	5,665	6,093
(YoY)	21.8%	4.7%	18.2%	10.6%	7.6%
영업이익	999	1,038	1,234	1,514	1,756
(YoY)	-0.5%	3.9%	18.9%	22.7%	16.0%
영업이익률	3.3%	3.3%	3.8%	4.5%	4.9%
세전이익	544	718	347	885	978
지배주주순이익	114	265	170	268	296
(YoY)	-49.5%	132.9%	-35.8%	57.3%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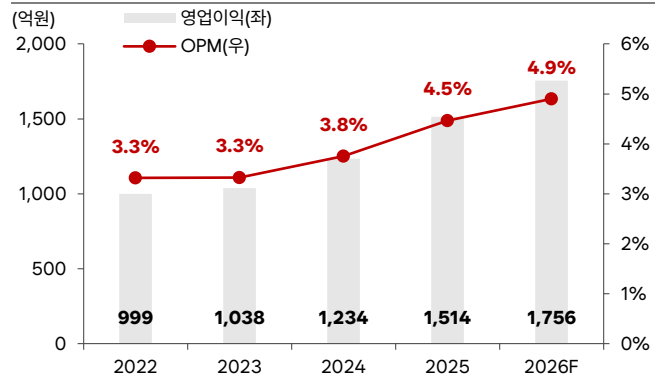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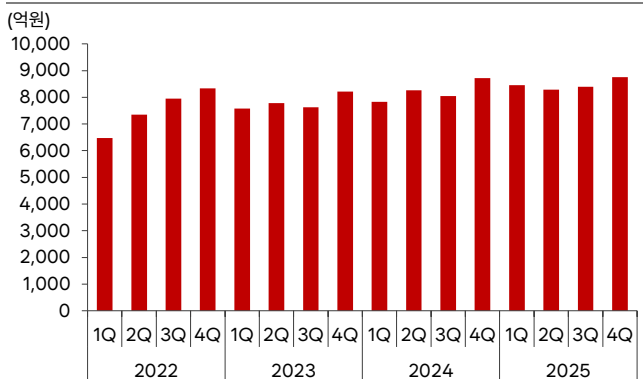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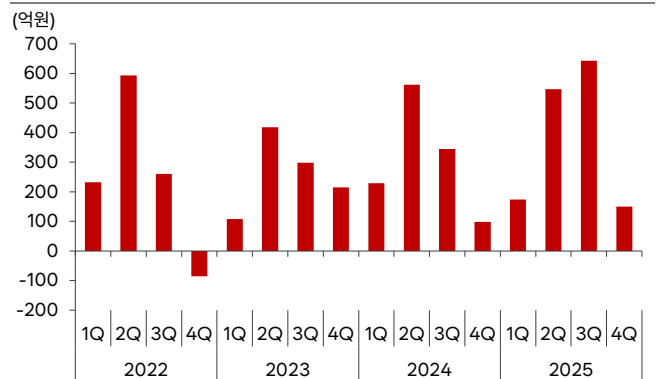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연결기준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긍정적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의지는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이지홀딩스의 2026년 기준 PBR은 0.50배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밸류에이션 흐름을 살펴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사료 테마주 강세 국면에서 PBR이 0.7배를 상회한 이후 주가 조정을 거치며 0.25~0.4배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해왔다. 이후 올해 2월에는 감액배당에 따른 결산 배당 서프라이즈(DPS 1,361원, 별도기준 배당성장 290%)를 계기로 PBR이 일시적으로 0.8배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재차 조정을 거쳐 현재 수준에 위치해 있다(4월 22일 기준 YTD 주가수익률 +25%). 동사의 5년 평균 PBR은 0.38배로, 현재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시가총액 기준 NAV 대비 할인율 측면에서도 과거 5년 평균 43.7%에서 현재 약 15% 수준까지 축소된 상황이다.

다만 최근 동사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의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시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홀딩스는 최근 2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감액배당을 실시하고, 2025년 4월 자사주 전량 소각을 단행하는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 기준 배당성향을 4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감액배당이 있었던 2024, 2025년을 제외한 2016~2023년 합산 배당성향은 18%). 이러한 배당성향 상향과 더불어, 2026년 지배주주순이익 성장에 따른 자회사 배당 여력 확대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미국 사료첨가제 사업 확대와 양호한 국내 양돈 업황을 기반으로 2026년 전사 지배주주순이익이 전년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동사의 2026년 배당 역시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이 기대된다(당사 추정 기준 2026년 DPS는 230원, 4/22 종가기준 배당수익률 4.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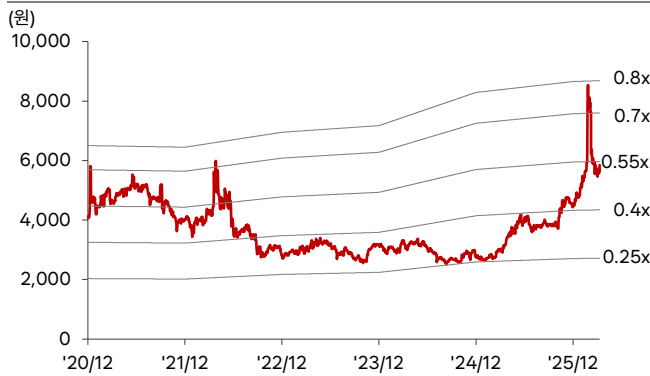
이지홀딩스 NAV 대비 할인율

(단위: 억원)

구분	기업명	시가총액	지분율	NAV
상장 자회사	이지바이오	2,660	50.2%	1,335
	팜스토리	1,544	48.7%	752
	우리손에프앤지	1,234	52.4%	647
	정다운	833	50.5%	421
	마니커	521	30.0%	156
	옵티팜	832	34.6%	288
	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A)			
비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B)				1,880
자회사 지분가치 (A+B)				5,479
순차입금 (C)				1,076
NAV (A+B-C)				4,403
이지홀딩스 시가총액				3,742
NAV 대비 할인율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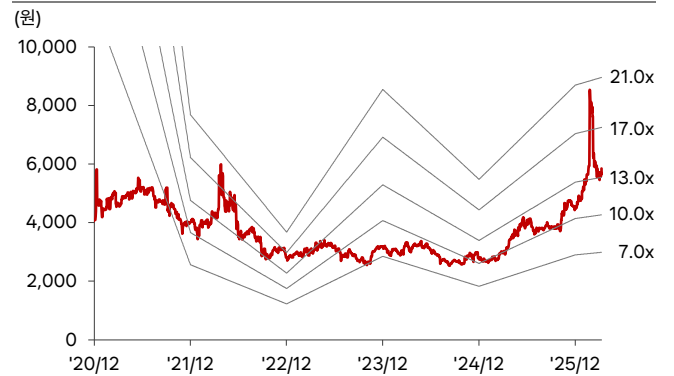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은 4월 20일 종가기준 / 비상장사 지분가치는 2025년말 장부가액 기준 / 순차입금은 2025년말 기준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PBR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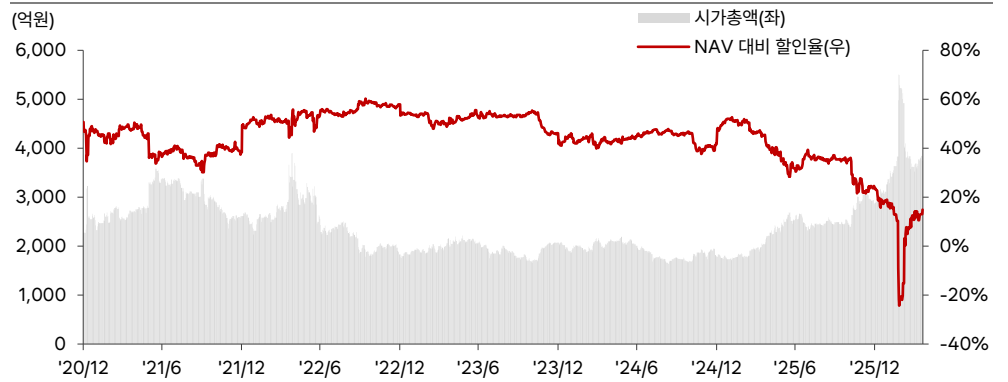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PER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NAV 대비 할인율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육류 소비 감소 리스크 존재**

최근 원달러 환율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환율 환경은 이지홀딩스의 수익 구조에 점진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의 주요 원가 항목 중 약 60%를 차지하는 사료는 옥수수, 대두박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환율 상승 시 양돈 사업(우리손에프앤지, 팜스윌드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원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전반의 상승을 동반하며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선택적 소비재 성격이 강한 외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먼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가격 탄력성과 외식 비중이 높은 삼겹살과 목심 등 구이용 부위를 중심으로 소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외식 채널 중심의 수요 둔화는 동사의 전반적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환율변동이 이지홀딩스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2025년 기준) (단위: 억원)

통화 구분	10% 상승 시(원화 약세)	10% 하락 시(원화 강세)
USD	-278	278
EUR	-1	1
CAD	9	-9
GBP	1	-1
합계	-269	269

주: 이지홀딩스 2025년 세전이익은 885억원
자료: 이지홀딩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ECO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0,103	31,192	32,850	33,889	35,841
증가율(%)	51.7	3.6	5.3	3.2	5.8
매출원가	25,966	26,860	27,729	28,224	29,748
매출원가율(%)	86.3	86.1	84.4	83.3	83.0
매출총이익	4,136	4,331	5,121	5,665	6,093
매출이익률(%)	13.7	13.9	15.6	16.7	17.0
판매관리비	3,137	3,294	3,887	4,151	4,337
판매비율(%)	10.4	10.6	11.8	12.2	12.1
EBITDA	1,762	1,854	2,135	2,488	2,864
EBITDA 이익률(%)	5.9	5.9	6.5	7.3	8.0
증가율(%)	5.6	5.2	15.2	16.5	15.1
영업이익	999	1,038	1,234	1,514	1,756
영업이익률(%)	3.3	3.3	3.8	4.5	4.9
증가율(%)	-0.5	3.9	18.9	22.7	16.0
영업외손익	-582	-371	-996	-517	-664
금융수익	625	771	578	663	682
금융비용	1,081	1,109	1,372	904	1,070
기타영업외손익	-126	-34	-203	-276	-276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127	52	110	-111	-111
세전계속사업이익	544	718	347	885	981
증가율(%)	28.4	32.0	-51.7	154.8	10.8
법인세비용	275	174	-4	192	213
계속사업이익	269	545	351	693	767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69	545	351	693	767
당기순이익률(%)	0.9	1.7	1.1	2.0	2.1
증가율(%)	192.3	102.4	-35.6	97.3	10.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14	265	170	268	297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85	613	1,649	2,364	2,383
당기순이익	269	545	351	693	767
유형자산 상각비	701	741	814	877	1,031
무형자산 상각비	62	76	87	98	77
외환손익	156	81	290	96	193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782	-582	311	125	447
기타	109	-248	-204	475	-13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74	98	-1,245	-501	-97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8	396	154	407	-58
유형자산의 감소	40	77	79	39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879	-541	-767	-818	-818
기타	-863	166	-711	-129	-9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903	-1,735	31	-499	-873
차입금의 증가(감소)	2,163	-1,822	449	-98	5
사채의증가(감소)	190	550	0	20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98	-120	-181	-281	-878
기타	648	-343	-237	-320	0
기타현금흐름	-11	17	44	-26	-9
현금의증가(감소)	733	-1,007	479	1,338	531
기초현금	2,380	3,113	2,106	2,584	3,922
기말현금	3,113	2,106	2,584	3,922	4,453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4,410	12,876	13,225	14,508	15,630
현금성자산	3,113	2,106	2,584	3,922	4,453
단기투자자산	2,203	1,601	1,197	1,045	1,087
매출채권	3,221	3,452	3,030	3,049	3,225
재고자산	3,580	3,415	3,863	3,837	4,058
기타유동자산	2,294	2,302	2,551	2,654	2,807
비유동자산	12,153	12,406	15,334	14,458	14,227
유형자산	8,296	8,296	10,810	10,850	10,637
무형자산	1,123	1,179	1,631	1,342	1,265
투자자산	2,321	2,490	2,518	1,892	1,950
기타비유동자산	413	441	375	374	375
자산총계	26,563	25,282	28,559	28,966	29,857
유동부채	13,262	11,368	12,338	13,109	13,325
단기차입금	8,190	7,588	8,586	8,357	8,357
매입채무	1,720	1,786	1,596	2,034	2,151
기타유동부채	3,352	1,994	2,156	2,718	2,817
비유동부채	3,122	3,624	4,155	3,502	3,558
사채	190	740	550	200	200
장기차입금	1,198	1,148	1,648	1,389	1,389
기타비유동부채	1,734	1,736	1,957	1,913	1,969
부채총계	16,384	14,992	16,493	16,612	16,883
지배주주지분	5,661	5,843	6,751	6,981	7,129
자본금	329	329	329	329	329
자본잉여금	2,366	2,369	2,169	1,320	1,320
자본조정 등	-615	-626	-683	-576	-57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64	173	1,075	1,089	1,089
이익잉여금	3,417	3,598	3,860	4,819	4,967
자본총계	10,179	10,290	12,065	12,354	12,973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6.1	7.8	10.5	10.8	12.1
P/B(배)	0.3	0.4	0.3	0.4	0.5
P/S(배)	0.1	0.1	0.1	0.1	0.1
EV/EBITDA(배)	7.6	7.4	7.4	6.1	5.5
배당수익률(%)	2.7	3.8	9.1	30.4	4.1
EPS(원)	175	407	261	414	460
BPS(원)	8,690	8,968	10,363	10,821	11,050
SPS(원)	46,208	47,880	50,425	52,407	55,554
DPS(원)	75	120	250	1,361	230
수익성(%)					
ROE	2.1	4.6	2.7	3.9	4.2
ROA	1.1	2.1	1.3	2.4	2.6
ROIC	3.2	4.8	9.2	6.5	7.8
안정성(%)					
유동비율	108.7	113.3	107.2	110.7	117.3
부채비율	161.0	145.7	136.7	134.5	130.1
순차입금비율	68.9	70.5	71.8	56.8	49.7
이자보상배율	2.9	1.8	2.1	3.0	3.6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2	1.2	1.2	1.2	1.2
매출채권회전율	10.6	9.3	10.1	11.1	11.4
재고자산회전율	9.1	8.9	9.0	8.8	9.1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지홀딩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4.24	농축산 전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한 지주회사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